

제 3 강 철학과 수사학

◆ 2교시 아리스토텔레스

▲ 고르기아스와 플라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간다면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게,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넣어서 절대주의 언어관과 상대주의 언어관을 대립시키며 당시 수사학자들을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언어관도, 언어관이라기보다는 수사학관이라고 할까요? 플라톤이 보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버전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한 수사학, 이것은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기에 썼던 수사학 관련 저작들에서는, 물론 초기와 후기로 나뉘는 그것이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못 돼요. 플라톤의 많은 저작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플라톤뿐만 아니라 고대에 쓰인 많은 저작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저작이 몇 년도에 쓰였는지까지는 아니어도 이것이 초창기에 쓰였는지 후기에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는 없어요.

단지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철학적 전개 과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미루어보건대 이 저작은 이것의 전에 있었을 것이다, 혹은 나중에 쓰였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지 정확히 몇 년도에 쓰인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플라톤이 수사학에 대해 언급했던 저작에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아까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 이 두 개의 책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고르기아스>라는 책은 주로 수사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인 반면에 <파이드로스>라는 책은 훨씬 부피도 크고 내용도 다양해요.

예를 든다면 문자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사랑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수사학 관련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니까 놔두고 수사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아까 <고르기아스>에서 나온, 고르기아스가 대변하는 수사학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최소한 같은 시기에 쓰였을 수는 없고 한 저자가 쓴 것이라면 저작 시기가 매우 떨어져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몇몇 학자들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이드로스>가 우선하고 <고르기아>가 나중에 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거는 <파이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수사학에 대해 좀 호의적으로 쓰이거든요.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호의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본인의 철학을 확고하게 정립한 후에 보다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을 것이라 생각되는 반면에, 지금 얘기하려하는 그 반대의 경우가 대다수 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더 설득력도 있어 보여요.

<고르기아스>는 초기에, 플라톤의 30대에 쓰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고르기아스>를 썼던 그 30대에는 젊은 패기로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리고 스승의 죽음도 봤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자신의 철학으로 무장하여 상대에 대하여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는 저작으로 보이는 반면에 <파이드로스>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70대에 썼지 않았을까 짐작해요.

좀 더 사람이 둥글어지고, 그러면서 <파이드로스>의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파이드로스>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기에 그러하느냐.

<파이드로스>에서 나온 수사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기아스>가 먼저, <파이드로스>가 나중에 쓰인 것이 맞다면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전문분야도 없이 껌데기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셈인데.

그래서 수사를 하는 사람,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상대방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수사학자가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만큼 글을 잘 쓰고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스승을 등장인물로 세워서요, 그런 사람이 드물죠.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철학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문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말이죠. 플라톤의 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시험을 앞두고 총정리해서 자기가 요점정리를 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체계 있게 딱딱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문장이 수려하지가 않아요. 무슨 요점 정리한 것처럼 체계적이긴 하죠. 그런데 문장이 간혹 가다보면 뭐라고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아니죠. 플라톤의 저작들은 문학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화편>은 연극 대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글쓰기가 굉장히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대화편을 썼다고는 해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스승인 플라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대화편을 썼다고 해요.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아까 말했듯이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플라톤 본인이 누구보다도 말을 참 잘해요. 글을 참

잘 써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본인이 수사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글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거기서 <파이드로스>에서는 <고르기아스>에서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수사학에 대해 다르게 얘기하죠. 어떻게 중재를 하나면, ‘수사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수사학도 있고 나쁜 수사학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사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좋은 수사학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쁜 애들이 나쁘게 써서 나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수사학은 우리 철학자들이 하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디알리티케, 그게 바로 수사학이라는 것이고.

나쁜 수사학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하는 것처럼,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속이는 것이 나쁜 수사학이다. 그래서 좋은 수사학, 나쁜 수사학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수사학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언어, 언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표현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데 역시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좋은 수사학, 나쁜 수사학. 그래서 결국은 철학자들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곧 디알리티케dialektike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변증술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수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 아리스토텔레스- 오르가논(논리학)의 구성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초반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수사학에 관련한 글을 쓰잖아요. <테크네 레토리케>라고. 물론 다른 책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해지지는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3권으로 만들어져있는 <테크네 레토리케>라는 책이 유일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들 중에서 <오르가논Organon>이라고 하는 일련의 책들이 있죠? 오르가논, 말 그대로 한다면 ‘도구’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연장’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써야하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련의 논리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르가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르가논’이라는 이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붙인 것은 아니고요. 메타피직 metaphysic도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그런 유사해 보이는 것들을 모아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말하자면 언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해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본 것이죠. 20세기의 분석철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 한 것이죠. 이미 사전에 해야 할 것으로 본 거죠.

- 범주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범주론’이라고 흔히 부르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라고 자세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소크라테스는 학교에 있다’라는 식으로 위치로 설명하는지.

- 명제론

이렇게 다양한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범주를 만들죠. 그리고 범주가 있다면 그것들이 명제가 돼야겠죠. 명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명제의 앞과 뒤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와 술어를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명제를 ‘인간은 소크라테스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 분석론

아니면 부정을 해 보면 어떻게 될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아니다.’ 또 이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옛날에 수학시간에 많이 해본, 역, 이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다룬 부분. 그리고 ‘아날리티카’라고 부르는 것, 한국어로 ‘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석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형식 논리학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것.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틀 안에 집어넣으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형식. 그래서 내용물만 진리라면 결론은 진리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아무리 진리라도 추론이 형클어지면 결론에 도달한 그 부분이 진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추론 과정이 정확하게 진리로 이끄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3단 논법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이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하지만 그 본래 용어는 ‘설로기스모스 syllogismos’라고 하죠. ‘설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3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논리를 오류 없이 정확히 추론하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있죠.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몇몇 인간은 죽는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은 안 죽는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걸 전부 조사를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타당한 논리이나 타당하지 못한 논리이나를 조사해보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논리체계가 어떤 것이냐를 다루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실제 개별 과학에다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분석론이에요.

<분석론>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로 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것이 형식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데아로 나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라고 말해 놓은 것을 실제적으로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스승처럼 디알리티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아날리티케라고 붙이죠. 분석론이라고. 그리고 나서 정작 디알리티케라는 말은 다른 데다 부여하죠. 우리가 아까 ‘실로기스 모스’라고 불렀죠? 3단 논법이라고 부른 그것. 그 말 안에 실제 3이란 숫자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축소된, 단축된, 대충 건너뛰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논리도 어쨌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죠. 그것은 ‘엔티메마entimema’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정확하게 모든 논리체계를 맞추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우리가 정치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수학자들이 하듯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단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전체에서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것. 대표적인 엔티메마에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바로 뛰죠? 논리적인 포함관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엔티메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한참 후대 사람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너 땀을 흘리고 있구나, 고로 너 아프구나.’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어디 아프구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 아프다는 말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절대 진리를 만들 수 있을만한 3단 논법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들. 100%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추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디알리티케’, 변증론이라고 부르죠.

- 토피카

스승이 썼던 ‘디알리티케’의 뜻을 어떻게 보면 강등시켜서 썼고. 그 자리에 ‘아날리티케’라는 새로운 말을 넣고 디알리티케는 좀 더 어눌하다고 할 수 있는 논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토피카Topica>에서 다뤄요. 또 그런 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지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못 쓰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아날리티카’ 얘기할 때에도, 3단 논법도 잘 못쓰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잘못되는 것들을 다 배제해야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설날에는 송편을 먹는다, 오늘은 내가 송편을 먹는다, 고로 오늘은 설날이다’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정도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웃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단 논법을 이상하게 뒤틀어 섞어 버리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건너뛰는 논리 사이에 여러 번 몇 번 건너뛰다 보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 소피스트적 반박

그러면서 <소피스트적 반박>이라는 책을 쓰죠. 그 책에서는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범주론>, <명제론>, 그 다음에 <분석론 전서>와 <분석론 후서>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변증론을 다뤘던 <토피카> 그 다음에 <소피스트적 반박>이렇게 여섯 권이 되죠? 그 여섯 권을 묶어서 우리가 <오르가논>이라고 불러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묶은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사후 200년후 지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논리적 훈련으로서, 그 전제 과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장’이란 뜻의 ‘오르가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의 구분과 수사학의 위치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수사학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수사학이 오르가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 <시학>도 안 들어가고.

<시학>이 ‘오르가논’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번에 걸쳐 언급했지만, 순수한 학문에 관한 책들,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 천체에 관한 것들이 있고. 반면에 기술에 관련된 것들. 포이에티카Poetica라고 부르는, 시학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죠. 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실천에 관계되는 것들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또 다른 군에 집어넣었죠.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이 책은 여기에 속하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도 학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적어도 두 번 이상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토피카에

서도 있고, 형이상학에서도 등장하고. 또 더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얘기해요.

그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책을 쓸 때에도 본인이 그것에 근거하여 쓰지 않았겠느냐,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 형이상학, 물리학 생물학 관련 책들은 사변적인 학문이라고 하고 윤리학은 실천과 관련한 학문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시학은 제작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수사학도 거기에 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테크네 레토리케’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학과 같이 제작에 관련한 학문에 넣어야한다는 해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르가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의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은 아무 얘기도 안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 변증론과 수사학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수사학에 대한 언급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은 듀나미스다’라는 말을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 수사학 책의 가장 첫 문장에, 보통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사학은 변증론과 떼어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첫 문장부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은 확고하게 구분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본인도 그 둘이 구별이 잘 돼서 뭔가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강박적인 표현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벌써 첫 문장에서부터 변증론과 수사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사학책 어디를 봐도 명확한 답은 없어요. 변증론과 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단지 어렵פות이나 구별하는 것에, 변증론은 어떤 의미에서 일 대 일 대화라고 할까요? 상대방과 견해가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분석론에서는 상대방과 견해가 달라서 이걸 풀어가야 할 일이 없죠.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면,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지,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시 말하면 수학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아까 엔티메마라고 불렀던, 축소된 혹은 가법게 사고할 수 있는 논법. 줄어든 3단 논법이라고 할까요? 3단 논법은 아니죠. 2단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상대방과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변증론인 반면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여러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변증론에서는 나와 비슷한 누군가와 얘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야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혹은 논리가 전혀 안 통하는 사람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수사학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대중 앞에서, 일반 대중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하나,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중들을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잘 해서 어쨌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거죠. 설득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인들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전 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내 편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 대 일이 아닌 일 대 다인 것이죠. 그런 학문이라고 얘길 해요.

어떤 의미에선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테크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듀나미스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이런 정리가 결론 격에 해당하는, 많은 논쟁을 거쳐 도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온 것이라 그것도 많이 불안정해요. 어떤 정확한 근거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서 부정확해요.

그래서 ‘상대를 설득한다’는 것이 필수가 되죠. 설득이라는 것이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방법에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 똑같은 말을 하는데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과 전과자가 얘기하는 것과 설득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해도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설득력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또 청중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옛날에 모 정치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 혹은 정치적 소신에 대한 타당함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지 그냥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연설을 나름대로 잘 한다고 알려진 정치인이예요. 자기는 연설을 할 때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청중이 자기 말을 들으러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으러 오진 않아요.

뭔가 기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 내 가면서 오는 건데 뭔가 가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긁어달라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확 긁어주면 바로 ‘옳소!’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런데 청중이 기대할 법한 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감동이 안 온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여기서 특정한 정파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됐다. 그런데 정작 같은 정파 안에서도 국민들 혹은 유권자가 기대하는 이슈가 아닌 엉뚱한 것을 들고 나와 표를 많이 잃어버리는 예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그 말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 청중의 반응이죠. 물론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 맞는데. 지금 그 말을 해서 되겠냐는 질타가 들어오죠. 이런 모습들 선거철 돼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던 정치인은 청중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청중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청중의 상태에 따라, 기대치에 따라, 청중의 '수준'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선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중을 상대로 얘기할 땐 간결하고 쉽게 얘기해야지 학자들에게 말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먹혀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좀 후대에 와서는 없어지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선 연설자의 기억력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연설하는 데 있어 뭘 보면서 하는 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건 그렇죠? 옛날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 라이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져서 청중을 보고 연설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꾸 밑을 내려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스크린에다 글을 띄워서 마치 청중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 할 때에도 그렇고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밑을 보지 않고 할까요? 밑을 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알고 하는 애긴지 모르고 하는 애긴지 확신이 안 생기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있었죠? 5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 그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연설문을 전부 외워서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기억력도 설득력을 높이는 데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로마 수사학, 나중에 중세 거쳐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잘 언급되진 않는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액션, 목소리의 톤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죠.

요즘은 학생들 웅변 잘 안 하는데, 옛날엔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논술을 많이 시키는데 옛

날에는 웅변을 많이 시켰어요. 웅변 할 때 막 울면서, 그럼 감동을 주잖아요. 목소리도 막 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도 잘 하잖아요. 꾸밈이 좋은 거죠.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자는 목소리가 안 좋았대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자기는 웅변가는 못하고 그래서 교육자가 되었다는 일화도 있는데. 그래서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가 되었는데, 교육자죠. 그런데 스스로 웅변가는 못 됐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책 제목처럼.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가설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변증론과 수사학의 밀접한 관계에 의한 오르가논 구성의 재고

아까 얘기했던, <범주론>, <명제론> 이런 것들은 어떤 유형의 대화이든지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해당돼요. 그것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진리를 향하는 과학적인 논리의 체계가 있는 반면에, 이는 ‘형식 논리학’이라고 부르죠. 3단 논법을 가지고 하는, ‘아날리티케’라고 부르는 그것.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꼭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럴 법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디알리티케’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의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죠.

수제자만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하고, 이 강의에는 아날리티케 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방법도 그러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그랬겠죠? 반면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는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대상을 따로 두었다고 그러죠? 대상을 더 넓게 늘려서 강의를 이원화시켜 했다고 그러죠.

그런 데에 필요한 논리라고 하는 것,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피스트적 논박>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책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분량 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토피카>, 그러니까 변증론의 내용을 다뤘던 <토피카>의 부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반면에 ‘아날리티케’ 같은 경우에는 두 권으로 돼 있어요. <분석론 전서>에는 형식적 3단 논법의 정리, 그것을 과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분석론 후서>에 과학이론.

그 구도로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스로 얘기했던 ‘변증론과 수사학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죠. 변증론은, 설로기스모스 즉 3단 논법이 아닌, 엔티메마라고 부르는 그 약식화된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디다 쓸까요. 아까 분석론

의 3단 논법은 과학에다 썼지만,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날리티카 1권(분석론 전서)에서는 과학에서 써야하는 논리 체계를 설명하고, 2권(분석론 후서)에서 실제 과학이론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도 변증론과 수사학의 관계를 이렇게 둘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범주론’과 ‘명제론’을 공통으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가 엄밀한 것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아날리티케’와 ‘디아리티케’로 나눌 수 있고, ‘아날리티케’에서는 과학을 다루는 1, 2권이 있고, ‘디아리티케’의 경우에는 ‘디아리티케’와 이 ‘레토리케’를 짝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가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오르가논’에서는, 오르가논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 오르가논에는 수사학이 빠져있고 그 대신에 <소피스트적 반박>이 들어가 있는데, <소피스트적 반박>은 내용상으로는 분량상으로는 하나의 부록 정도로 생각이 든다고 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증론과 수사학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런 관계예요.

본인도 그 책 안에서 정확한 어떤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설득력 있는 전개를 하진 못해요. 굳이 한다면 일 대 일로 하느냐 일 대 다로 하느냐 이런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 정도의 차이,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상으로는, 어떤 논리를 사용하느냐의 차원에서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가요.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론적인 측면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 ‘아날리티케’ 1권과 2권의 차이와 똑같다는 거죠.

물론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전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수사학의 전개 과정은요. 플라톤 이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플라톤 이후로 수사학은 완전히 무장 해제 당했어요. 절대주의가 ‘철학’의 이름으로 철학 안에서의 절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상대주의는, 수사학도 함께 중심무대에서 밀려난 거죠.

중심 무대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나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죠. 중심 무대에서 권력을 잃으면 흔히 가는 데가 꼭 대학으로 가죠. 교육으로 가요. 수사학도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뺏긴 뒤로는 교육의 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트리비엄, 7학문, 4학문, 3학문. 트리비엄은 세 개죠. 쿼드리비엄은 네 개고. 요즘 말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단계로 가든 간에 아주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야하는 학문이죠. 최종은 신학이고.

그 신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하는 것이, 말을 똑바로 해야 하니까 문법, 그 다음에 수사, 그리고 논리. 이 세 가지 교육을 갖춰야 비로소 신학 같은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자연과학이라면, 기하학, 천체 같은 학문이 있죠. 그것 말고 인문학을 한다면 트리비엄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문법, 수사, 논리 이 세 개의 트리비엄이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굴곡이 있는 거예요.

논리와 수사가 같이 나란히 오기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를 통해 구조조정 당해요. 이거 뭐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 있냐면서 논리와 문법만 남아있고 수사가 잠시 없어져요. 특히 이게 데카르트를 상징인물로 하는 합리주의로 오게 되면 더욱 그러는데.

뵘르 루아얄이라고 하는 이성주의 문법이 있어요. 촘스키도 거기에 자신의 뿌리를 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이성문법’ 그리고 논리학. 그러니까 수사학은 거기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를 반복하는데.

이 반복이 20세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힘은 잃어버리면서 교육의 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교육의 장으로 들어왔다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언어 교육, 문학 이론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이론’이라든가 ‘문체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학이 전개가 되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은유’, ‘환유’를 다루는 것들이죠. 은유가 수사학의 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은유 그리고 환유,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언어 교육, 문학 이론의 차원으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20세기까지 오는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문법 과정, 논리 과정, 수사 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의 장 안에서 계속 발전해 오는데. 발전이란 말이 좀 무색하죠. 어쨌든 명맥을 이어오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의미에서의 수사, 다시 말하면 아까 수사에서 논쟁술의 개념이 쪽 빠져버렸잖아요? 문체나 단어 상호간의 의미만 얘기하다가 20세기 와서 다시 수사가 재주목을 받게 돼요.

페렐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회자되는데, ‘신(新)수사’ 혹은 ‘신(新)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논리학에서 말하던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철학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형식언어가 아니라 자연 언어에 근거한다는 게 다르죠.

페렐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사학과 변증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 그 지점에서 출발해요. 그 전에 야콥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수사학은 시학과 기타 문법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다뤄져야한다’고 말한 점에서 착안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변증론(디알리티케)와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논증, 논쟁 차원에서의 수사학의 힘을 다시 현대로 끌고 오죠. 그것이 페렐만이 부르는 신(新)수사학이에요. 특히 현대의 법정에서 다뤄지는 모든 언어활동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20세기에 다시금 각광받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정치적 배경과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20세기가 다시 또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자리 잡고, 또 미디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들을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 그리스 시대와 비슷한 거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전달이 되고, 더 주목 받는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진리보다 설득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시 20세기에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알 수는 없다는 식의 생각이 미치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논쟁의 부분이 부각되죠. 그 측면하고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문학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문학 이론 안에서도 부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낭만주의에 오게 되면 수사학이 매우 박해를 받아요. 박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문장 쓰는 데 공식에 맞추듯 쓸 수는 없다고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 안에서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벨기에의 ‘그룹류’라고 하는 여러 학자 군이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언어학적 이론을 끌어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사학 이론을 정리하죠.

20세기 수사학은 아마도 다음시간에 조금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20세기 수사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가 되요. 무장해제 당하면서 이데올로기 안에서 완전 사라졌던 ‘논쟁’으로서의 수사학과 명맥을 유지해 왔던 ‘문학이론’으로서의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20세기 현재 수사학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수사학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이것이 20세기에 이르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마치겠습니다.